

이현호, 황영미 선교사의 주간소식지(2025/9다섯째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롬 11:17-18)

저와 아내는 이번 주에 제가 사역하는 타이베이에서 차를 몰고 남쪽으로 한시간 반 정도 떨어진 마오리현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시골 마을 곳곳을 전도하시는 같은 교단 선교사님 부부와 교제도 하고 그분들이 하고 계신 전도도 같이 해 보려고 약속을 정하고 다녀왔습니다. 첫날 저녁 그곳 선교사님 부부와 이미 전도체험을 하려고 먼저 와 있는 한국 청년 한 명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둘째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날 계획되어진 시골 마을로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손에는 그날 목표량의 전도지를 나누어 들고 차에서 내려 가가호호 방문하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시골은 대문을 장군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외치면서 집집마다 방문했지만 집 안에 계신 분들과 잠간의 대화도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집에서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했고 정말로 어렵게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분들께도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전도지를 한 집 한 집 우편함이 나 문고리에 꽂아 놓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골 지역 전도사역을 체험하면서 저의 마음 속에 한 가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길에서 사람 만나기도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사는 도시에는 나가면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왜 전도를 잘 하지 않았을까?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교회에 출근해서 교회 전도지와 전에 단기선교팀이 두고 간 전도용 휴지를 가지고 나가 교회 근처 건널목과 지하철역 근처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인사하며 전도지와 휴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지나갔지만 시골을 다녀오기 전과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의 질문과 대답을 주셨습니다. “니가 지금까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그리고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먼지 아니? 그건 니가 당장 열매까지 보려고 했기 때문이야!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가 내 시간에 하는 거야! 너는 너가 해야 할 것을 하면 그것으로 족한거야”

이번 시골지역 전도 경험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시는 힘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2025.9.30

대만 타이베이 이현호, 황영미 선교사